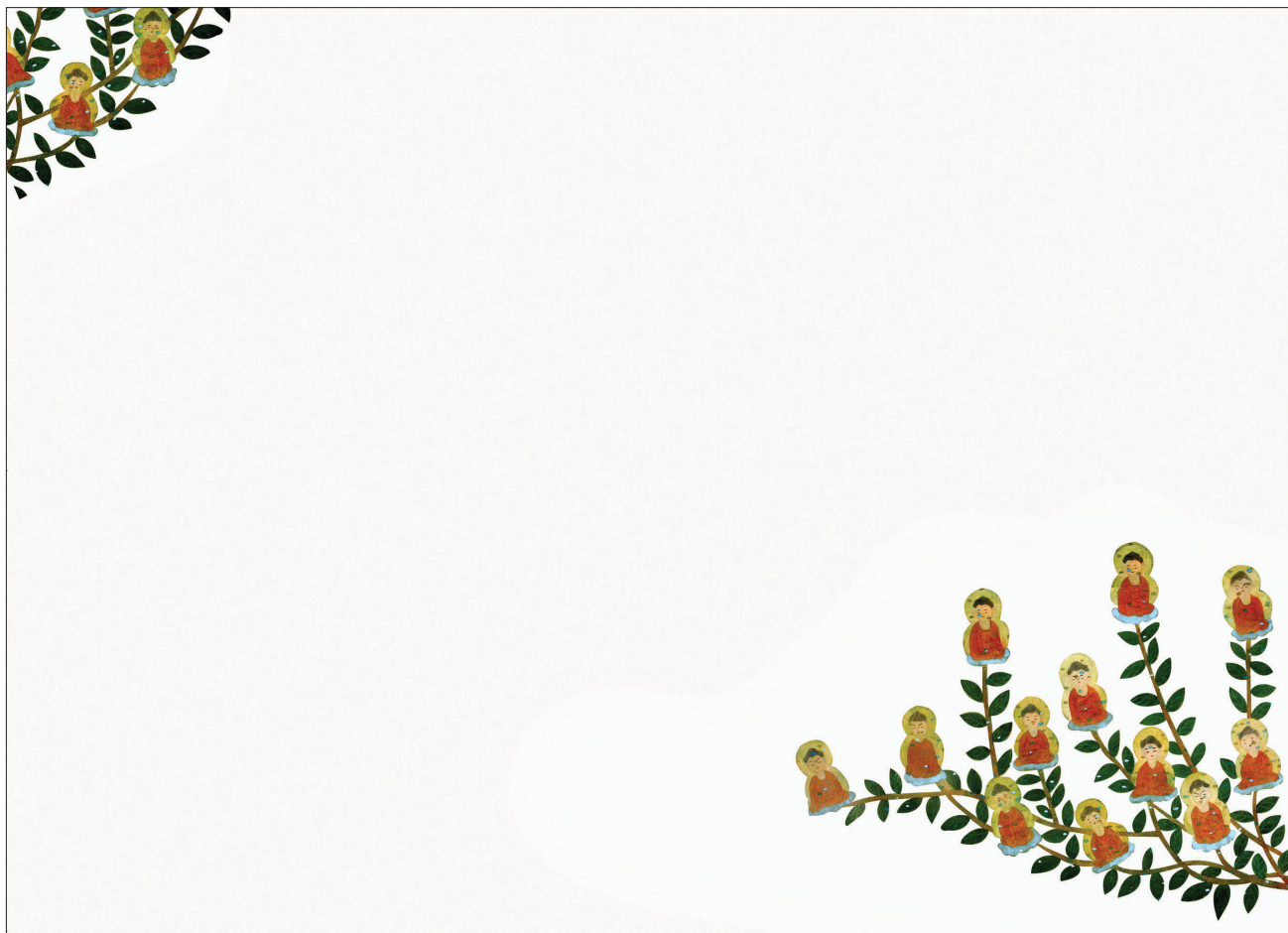


갤러리 색즉시공



공양

당신의 보살피심 받아

법의 가지에 의지하여 그 자리에 나아감에 결림이 없으신지요? 부디 한가롭게 거닐어 자리에 앉으소서.

보공양진언 "옴 아야나 삼바바 바아라 흠"

빨간 사과 당신께 공양 올립니다.

그림·글=희상 스님

술은 나쁜가 내가 나쁜것인가

Buddha in Comic & Ani

㉔ 니노미야 토모코의 <음주가무연구소>



니노미야 토모코의 <음주가무연구소> 표지

연말연시는 술을 먹기 참 좋은 시절이다. 회사, 동문 등 연일 이어지는 송년모임에서 우리는 술과 전정을 벌인다. 실제 술자리를 좋아하는 한국 사람은 1인당 연평균 소주 84병을 마시는 것으로 조사됐다.

술은 인간이 만들어낸 식품 중 가장 매력적인 식음료다. 그래서 이에 대한 찬사도 그치지 않는다.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은 "포도주는 신이 인간에게 내린 최고의 선물"이라고 말했고, 술을 좋아했던 이태백에 대해 '이백두주시백편(李白斗酒詩百篇·이태백은 술 한 말이면 시가 백 편)'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한국 근대 수필가였던 김진섭 선생님이 어지간한

주당이었다. 그의 수필 중에는 술을 소재한 수필이 적지 않다. 김진섭 선생님은 '취인감후'에서 주중(酒中)의 진리에 대해 이렇게 노래합니다.

"일배일배부일배(一杯一杯復一杯)에 이미 나는 내가 아니고, 너는 내가 아니다. 그럼으로써 참으로 그때에 내가 비로소 내가 되고 내가 비로소 내가 된다. 우리의 얼굴이 장미화할 뿐 아니다. 이제 만천하가 하나의 불그레한 화단이다."

한국인의 주도(酒道)는 철저히 '권하기'다. 일단 붓고 먹고 본다. 그래서 과음하고 패거리로 진상을 부린다. 그래도 어찌겠가. '음주'는 어른만이 할 수 있는, 어른에게만 허락된 유희인 것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주정뱅이는 어디에나 있다. 술을 별로 많이 먹지 않을 것로 보이는 이웃나라 일본에도 주정뱅이는 있다. 일본 순정만화가 니노미야 토모코의 프로젝트 단편집인 <음주가무연구소>에 따르면

<천재패밀리주식회사>, <노다메 칸타빌레> 등의 히트 작품을 그린 니노미야 토모코는 초기 단편집 <음주가무연구소>에서 자신의 음주 습관에 대해 위트 있게 보고한다. 하지만 여류 순정만화가의 음주 행태라고 하기에는 너무 엽기적이기까지 하다. 물론 주변에 대한 민폐는 말할 것도 없다. 이 만화의 포인트는 '공감대'와 '호기심'이다. 왕년에 술 좀 먹었던 사람에게는 "이 사람도 이렇구나"를, 술을 먹지 않는 사람에게는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해준다.

일본 만화계의 주당으로 잘 알려진 작가의 자전적

이야기라는 것도 이 작품의 매력이다. '술'과 '주사'를 테마로 편집부에 술을 얻어먹으며 만화를 그려 책으로 발간했다는 것 자체가 작가 자신이 정말 술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작품을 보면 알지만 작가 집안 자체가 주당이다.) 오죽했으면 자신의 화실에 '음주가무연구소'를 만들고 자신 스스로 소장품 자처했을까.

日 만화계 주당인 작가의

음주·주사 일화를 만화로

'호불호' 갈리는 음주문화

불교는 '불음주계' 엄격해

다만 재가자는 '차계' 적용

일부 스님 음주 범계 '눈살'

불교의 경우는 기본 계율 다섯 가지 중에 불음주계(不飲酒戒)가 있어 음주에 대해 엄격하다. 그러나 재가자들의 경우 사회생활을 위해 부득이 술을 마시게 될 경우 남에게 해가 되지 않게 적당히 마시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이를 차계(遮戒)라고 하는데, 이는 본래 죄는 아니지만 교단의 필요상 또는 다른 죄가 유발될 것을 막기 위해 경계하는 계율을 말한다.

이에 대해 일타 스님은 "술은 사람의 마음을 혼미



니노미야 토모코의 <음주가무연구소>의 한 장면. 예절을 중요시 한다고 생각되는 일본에도 이런 유쾌한 주정뱅이들이 있다. 작품에 등장하는 이야기는 모두 주당인 작가의 자전적 일화다.

하게 만들고 우리의 근본 마음을 무명(無明)으로 덮어 지혜를 발현시키지 못하게 만들어 버린다"면서 "이와 같은 측면에서 본다면 술을 마시는 그 자체가 지도 본질적인 죄가 될 수 있으나 주 그 자체가 죄라고 하기보다는 술에 취하게 되면 살생, 투도, 음행, 망어의 성취를 유발한다는 속성이 더 강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차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하기도 했다. 다만 차계는 재가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출가자에게는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연말이 되면 스님들의 음주 범계사건이 끊이지 않는다. 지난해에는 한 곳에 모여 밤새 음주 파티를 열어 문제가 됐고 올해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상좌 스님 2명이 음주 운전으로 적발돼 망신을 사기도 했다. 이것이 대한민국 불교의 부끄러운 민낯이라면 민낯일 수 있겠다.

어찌됐던 술을 좋아하는 필자에게는 애초 술을 정당히 평가하는 것은 어렵다는 게 결론이다. 술을 싫어하는 자는 이를 나쁘다할 것이고, 좋아하는 사람

은 이를 좋다고 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에 대한 좋고 나쁨은 애초 우리가 논할 것은 없다.

먹고 난 후의 결과가 중요할 뿐이다. 술이란 물건은 본래 그 같이 나쁘지도 않고, 좋은 것도 아니다. 모두 인간에 의해서 결정된 이기적인 '호불호(好不)'일 뿐이다.

술은 어찌 한 잔 들어가면 즐겁기 마련이다. 어차피 먹을 거라면 적당히 먹는 것이 외는 다른 방법이 없다. 연말연시 분위기에 자신을 잃지 말길 바란다.

앞서 김진섭 선생님의 수필을 인용했으니 그의 수필로 글을 가름하려 한다. 이를 보고 주자(酒者)는 마음을 추스리시길.

"물은 우리를 현명하게 만들고 술은 우리를 즐겁게 만든다. 주도는 오직 단순히 이 양자를 곁하기 위해 물과 술을 병용하는 것이다. 우리는 술에 즐겁게 취하고 물로 너그라이 깨우는 것이다. 말하자면 감각에 붙어서 속기(俗氣)를 유수에 씻음이다." <물>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탱화 청동불상 전문 [1,000불, 3,000불, 10,000불]

상설전시관 100여평 개원



신중탱화

四代傳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효 → 보응당 문성 → 회응당 상균 → 원만당 석운

해동불교미술원

010-6338-5167 / 010-3743-5167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1동 183번지 해동빌딩

생활밀착형 온라인 쇼핑몰 무료배송

칠성상회 02-879-2007

상품 문의 및 기타 사항

02-879-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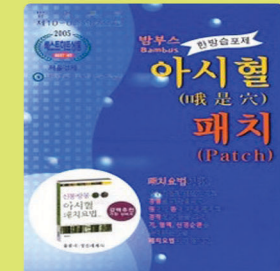
연락 주시면 자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입금계좌 안내 :

신한 100-023-357023 (주)한메소프트



고세라 복사기(중고) A3~A6용지 사용가능 팩스,복사,프린트 모두가능 금액: 950,000원



수행 중 찾아오는 피로인 손발의부기,냉기 예방에 탁월한 아시혈 패치(30매) 금액: 33,000원



수행에 지친 분들의 원기 회복과 집중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지리산 다슬기액(30매) 인달본(80ml/60팩) 금액: 115,000원



멀리 있어도 함께하며 미술관 진심을 전달합니다. 3인 근조 화환 (지정 날짜,시간에 배송가능) 금액: 100,000원



5차 재입고,매년 인기 상품 을 겨울 따뜻하게 준비하세요. 거성 온수피이 카펫 매트 금액: 330,000원



홍수승(風水總論) 이산 장태상(장태상)의 현공홍수학 연구의 집정 (무료배송) 금액: 35,000원